

태경케미컬 (006890)

Company Issue Brief

Mid-Small Cap | 2024.7.4

탄산가스 Capa 증설 기대감

| Analyst 정홍식 | hsjeong@ls-sec.co.kr

기업개요

태경케미컬은 정유 &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원료(파이프라인으로 연결)로 액체탄산(수요처: 조선용접 등의 공업용, 맥주·탄산 등의 식음료용, 반도체 세정용)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드라이아이스(신선식품 콜드체인용 냉매)도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가스(질소, 산소, 에틸렌 등), 수산화마그네슘(폐수처리 정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실적동향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0년 ~ 2023년 성장하고 있다. 이유는 1)조선용 용접 액체탄산 수요 증가(2023년 매출 비중 27%), 2)신선식품 배송용 드라이아이스 수요 증가(상대적으로 ASP ↑, Margin ↑, 특히 코로나 시기에 큰 폭 증가), 3)원료 수급 불균형(원료가스 조달 문제)으로 인한 액체탄산 가격 상승으로 파악된다. 다만, 2020년 ~ 2023년 액체탄산 ASP 상승폭이 높아 2024년에는 Base Effect를 고려하여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체크포인트

첫째, 원료 공급처 확대 → Capa 증설: 동사의 사업 구조상 원료가스 공급처가 확대되어야 액체탄산 Capa 증설이 가능한 구조다. 동사는 대산 지역의 LG 화학 신규공장 가동에 따른 원료가스 확보(1H25 예정)로 기존 Capa 대비 100~120% 수준의 제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액체탄산 Capa가 확대되면 수요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는데(원료가스 조달이 안정적일 경우 고객선 확대에 긍정적임), 1)반도체: 현재 포토·식각 공정에 일부 공급, 향후 Capa가 확대되면 세정용으로 확대될 수 있음. 2)드라이아이스 수출: 일본에서는 원료가스 수급 불균형으로 드라이아이스 ASP가 한국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 3)식음료 고객선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며 냉동 보관용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M/S 1위(약 33% 수준) 사업자로서 경쟁력이 있고, 새벽 배송 등의 신선식품 온라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드라이아이스는 액체 탄산을 압축, 성형 등의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 상대적인 ASP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Not Rated

목표주가	Not Rated
현재주가	13,160 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1,527 억원
KOSPI (7/3)	2,794.01pt

Stock Data

90일 일평균거래대금	13.27 억원
외국인 지분율	0.8%
절대수익률(YTD)	-4.7%
상대수익률(YTD)	-9.9%
배당수익률(23년)	1.5%

재무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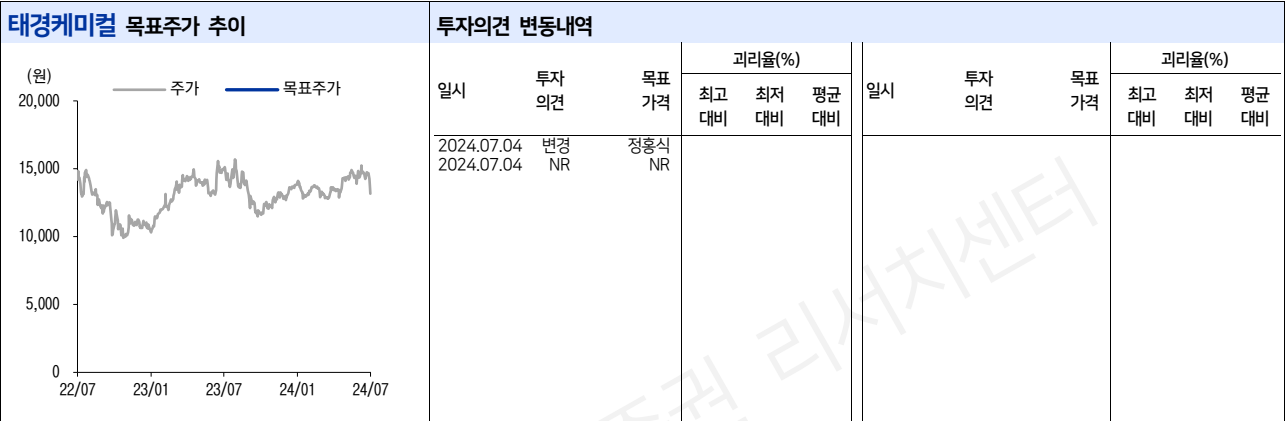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47.1	54.1	59.6	70.7
영업이익	7.7	12.1	10.4	17.9
순이익	7.7	10.9	8.9	17.4
ROE (%)	6.2	7.7	6.0	10.8
PER (x)	21.2	13.1	14.1	9.2
PBR (x)	1.3	1.0	0.8	1.0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태경케미컬, LS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홍식).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15% 기대 -15% 이하 기대	92.7% 7.3% 100.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투자의견 비율은 2023.7.1 ~ 2024.6.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